

# 광주 백화점 큰손은 '30대'

30대가 백화점 고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른바 '397세대'가 백화점 주요 소비자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평균 매출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자사카드(삼성·씨티) 매출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지난해 23%에 비해 11% 성장세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

중을 나타냈다. 지난해까지 35%로 매출비중이 가장 높았던 40대는 27%로 떨어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자사카드(롯데카드) 올 상반기 매출 중 30대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32.5%로, 40대가 차지하는 21.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처럼 백화점 주요 소비자층으로 급부상한 30대는 '397세대'로 정의된다. 30대 연령층에 9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70년대생으로, 사회·정치적 이슈에

서 벗어나 해외여행 자유화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리며 세계화된 눈높이를 가진 소비자층이다.

이들의 소비성향은 해외명품에서 특히 뚜렷이 나타난다.

신세계백화점에서 30대 소비자층의 명품장르 매출비율은 2009년 35.9%에서 2010년 37.2%, 올 상반기 38.9%로 매년 조금씩 상승중이다.

특히 이들은 주로 고가의 상품군에서 매출이 높다. 선호하는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SK-2, 샤넬 화장품

과 같은 수입화장품과 캐주얼 의류에서 고가에 속하는 타일과 마인 등이다.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장르별 매출 비중은 화장품 28%, 아웃도어 22%, 캐리커캐주얼 21%, 신사복 18%, 잡화(구두)15% 등의 순이었으며 신선식품, 생활을 제외한 대부분 장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소비트렌드를 바꿀 정도로 핵심 고객층으로 부각한 30대 소비자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젊은층

이 좋아하는 의류브랜드와 화장품 브랜드를 연계하거나 고객 초대회를 갖는 등 397세대만을 위한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평균 백화점 전체 매출 구성비는 아직 30·40대가 크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올 상반기 30·40대의 매출 구성비는 전체 매출 중 61%를 차지했으며 롯데백화점도 53.8%에 달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 광주은행 '여성리더 육성 전략 워크숍'

KJB광주은행이 여성리더를 발굴 육성하는 등 여성인력 개발과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를 가꿔 나가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1일 오후 담양군 담양리조트에서 창사 후 첫 114명의 여성 책임자를 초청, 1박2일 동안 'KJB 여성

리더 육성 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은행의 중장기 여성리더 육성 로드맵과 여성 책임자들의 자기혁신, 리더십 배양을 통해 준비된 여성리더를 발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 발전을 위해 여성리더들의 한 발 앞선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최근 인사에서 광주은행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계림지점 김해경 지점장을 여성 영업본부장으로, 감사부 김소영 선임감사역을 임용지점장으로 발표했다. 또한 송기진 은행장 취임 이후 최근 3년간, 4급 여성책임자 승진비율이 종전의 20% 수준에서 51%로 두배 이상 확대되는 등 고급 여성 인력 양성에 노력, '2009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영광 염산천일염농 '농공상 융합 기업' 선정

영광 염산천일염농법인(회장 김영관)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중기청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65개 대상기업 중 천일염 생산업체로서 유일하게 선정돼 갯벌 천일염의 주생산지인 전남지역 천일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염산천일염농법인은 국내최고의 천일

염가공처리시설과 친환경 도자기관 염전을 갖추고, 식탁·주방용은 물론,식품업체 납품·절임용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친환경 프리미엄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산 갯벌 천일염은, 세계소금의 0.2%에도 못 미치는 희소자원으로, 염화나트륨이 99%인 일반소금과 달리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15~20%로 풍부해 '건강 소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김영관 회장은 “이번 농공상 융합기업에 선정돼 천일염 업계도 한층 더 발전에 궂은 노력을 마련했다”며 “먹을거리가 풍부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들을 천일염과 연계해 제세대에 융합 '웰빙 소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정업체는 농공상 융합형 R&D 지원사업과 소비자·생산자 상생협력 사업, 식품·의식 종합자금 등의 지원과 함께 전시·박람회 참가, 제품 홍보 등 마케팅에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상반기 매출 비중 30%...주 소비층 부각 전년보다 11% 증가...백화점, VIP 관리

과 같은 수입화장품과 캐주얼 의류에서 고가에 속하는 타일과 마인 등이다.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장르별 매출 비중은 화장품 28%, 아웃도어 22%, 캐리커캐주얼 21%, 신사복 18%, 잡화(구두)15% 등의 순이었으며 신선식품, 생활을 제외한 대부분 장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소비트렌드를 바꿀 정도로 핵심 고객층으로 부각한 30대 소비자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젊은층

이 좋아하는 의류브랜드와 화장품 브랜드를 연계하거나 고객 초대회를 갖는 등 397세대만을 위한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평균 백화점 전체 매출 구성비는 아직 30·40대가 크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올 상반기 30·40대의 매출 구성비는 전체 매출 중 61%를 차지했으며 롯데백화점도 53.8%에 달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조선업 수주 모멘텀 지속 정유·IT 실적 개선 기대

그리스 재정 긴축안의 의회 통과 이후 투자심리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면서 KOSPI가 한 달여만에 회복하는 양상이다.

유로존 국가들과 IMF의 추가 구제금융에 이어 프랑스·독일 등 주요 채무보유국에서는 그리스 국채의 만기 연장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경기지표 개선세도 시장반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6월 시카고 PMI가 예상 밖의 개선세를 나타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악화가 제조업의 부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시카고 지역이 자동차, 기계 생산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일본 지진피해 복구에 따른 3/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경기는 5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모두 상승반전에 성공했다. 선행지수 구성항목 중 설비투자 항목이 증가하면서 경기 확장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점이 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지만, 기다렸던 경기 모멘텀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주식시장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그리스가 디폴트 사태를 모면하면서 미국채 가격 급락, 유가 및 유로화 가치 상승(달러화 약세) 등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자금들의 위험자산으로의 회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국내증시에서 6월 내내 매도세로 일관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3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KOSPI는 1차적으로 지난 5월의 반곡점인 2150~2180선의 저항대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미국 경기둔화 우려 및 그리스 문제로 대표되는 대외 불안정성 완화와 국내 경기흐름의 개선세 전환가능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꾸준한 상승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장 여건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주식시장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과 수급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승시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4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과 가격 메리트를 활용한 종목선택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실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자동차·자동차 부품, 조선 등의 경기 민감주와 꾸준한 실적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조선업종은 2/4분기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FPSO, 해양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국내 3사가 보여준 강한 수주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수관련주도 한국 및 중국 정부의 내수확장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가격 메리트를 고려할 경우에는 정유와 IT 업종도 2/4분기 실적 모멘텀이 악화되고 있지만 펀더멘털 대비 하락폭이 크고, 하반기 이후 실적 개선세를 기대할 수 있어 투자심리 개선세에 따른 상승세가 기대된다.

## 새 얼굴

### “정확한 통계자료로 지역발전 기여”

#### 신승우 호남지방통계청장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자료를 만들어 지역발전에 기여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신승우(54)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국가 경영에 있어 통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통계자료를 생산해 지역민의 공감을 얻는 호남지방통계청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신 신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청주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87년 경제기획원 통계조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통계청에서 산업동향과장, 인구조사과장, 통계교육원장, 통계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분쟁 공정 처리해 노사 안정 최선”

#### 김양현 전남노동위원회장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및 권리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김양현(5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행 초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경청해 큰 혼란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노사관계법제팀장·안전보건정책과장·인건고용센터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오리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손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 전복장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들에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완도읍 남도리 1-1 (완도읍 남도리 1-1) | 전화: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